

시대의 틀을 넘어선 여성독립운동가

- 남자현과 최용신 -

독립운동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현실을 직면하고 맞서는 용기와 양심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과 선양은 남성독립운동가에 비해 적다. 여성의 독립운동을 증명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활동 기록이 적기 때문에,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 생각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의 여성 구성원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이나 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돌본 활동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임무를 위해 무장투쟁에 참여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부족했다. 이처럼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하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역할과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시대의 틀을 깬 여성독립운동가가 있었다. 바로 경북 영양 출신의 남자현이다.



남자현은 1872년 12월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7세에 이미 한글과 한문을 터득하고, 12세에는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을 읽었으며, 14세에는 사서(四書)를 독파하였고, 시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19세(1891년)에 김영주(金永周)와 혼인하였으나 1896년 7월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남편이 전사하였다. 그해 12월 유복자로 태어난 김선달(金善達)을 기르며 시댁에서 생활하였다. 1919년 2월 말 서울로 상경해 남대문교회를 중심으로 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3월 9일 중국 랴오닝성 통화현으로 망명하여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하였다.

서로군정서는 1920년 8월 시작된 일본군의 독립군 '대토벌작전'을 피해 백두산 안도현을 거쳐 지린성 어무현으로 이동하였다. 남자현은 서로군정서와 함께 이동하며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여 독립군의 간호에 전력을 다하였다. 1927년 2월 '길림 대검거사건(吉林大檢舉事件)'으로 안창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계 지도자 200여 명이 중국 관현에 체포되었다. 이때 지린 감옥에 갇힌 42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에 인계되는



남자현과 그녀의 가족들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구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이 사건을 여러 곳에 알리고, 비상대책반을 꾸려 구금된 독립운동가들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이러한 독립운동 후방에서 지원 역할로 인해 남자현은 '독립군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었다.

남자현은 독립운동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무장투쟁에도 나섰다. 1925년 4월 채찬·김문거 등과 함께 조선 총독 처단 계획을 세우고 권총 한 자루와 탄환 8발 지니고 직접 서울로 잠입하였다. 교회 신자로 변장하고 총독 처단을 준비하였으나 기회를 포착하기 어려워 만주로 돌아갔다. 1933년 2월, 만주국 건국 1주년 행사가 열리는 1933년 3월 1일을 기해 다시 한번 이춘기 등과 주만 일본대사 이자 관동군 사령관인 무토 노부요시 처단 계획을 세웠다. 2월 27일 거지로 변장하여 권총 1정과 탄환, 폭탄 등을 숨기고 장춘으로 향하던 중 하얼빈 교외 정양가에서 미행하던 일본영사관 소속 형사에게 붙잡혔다.

이후 하얼빈주재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6개월간의 가혹한 고문과 옥고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8월부터는 항거의 의미로 단식투쟁도 시작하였다. 단식 9일 만인 8월 17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출옥 후 여관에서 병간호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1933년 8월 22일 사망하였다. 마지막 순간, 독립되는 날 자신의 돈 200원을 독립축하금로 바치라는 것과 손자에게 교육을 시켜 자신의 뜻을 알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1933년 8월 23일 영결식이 열렸고 하얼빈의 외국인 공동묘지 마가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8월 27일자 『조선중앙일보』 「무토대장 모살범 남자현(여) 수벌세(武藤大將謀殺犯南慈賢(女)遂別世)」라는 기사로 사망 사실이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이러한 남자현의 흔적은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생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래 멸실되었으나 1999년 후손들에 의해 근처로 이전 복원되었으며, 2025년 10월에는 기념관과 역사공원 등으로 새롭게 개관되어 그녀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중국 하얼빈에 조성된 그녀의 무덤과 비석



남자현 생가 터 인근에 복원된 남자현 생가
(경북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208(394번지))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로 타국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거나 마을에서 만세 시위에 앞장선 남자현과 같은 여성들이 있었던 한편 식민통치 아래에서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고 민중과 어우러져 그들의 삶을 변혁 혹은 계몽하고자 한 여성독립운동가도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소설 『상록수』의 모티브가 된 최용신이다.

최용신은 1909년 8월 함경남도 덕원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조부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였고, 부친은 1927년 신간회 덕원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운동과 사회운동을 활발히 펼쳤던 지역 유지의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중등교육을 이수하였다. 원산을 대표하는 여성교육기관인 루씨여학교 보통과를 거쳐 1928년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최용신은 문학에 소질이 있었으며 농촌 여성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졸업 후 서울로 간 최용신은 미감리회 계열인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했다. 여기에서 농촌사회지도교육과 교수인 황에스더와의 만남은 직접 농촌에 들어가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9년 여름 황해도 수안과 1931년 8월 강원도 통천 지역에 파견되어 학생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이들에게 한글과 산수, 노래, 웅변, 율동 체조 등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1931년 10월 최용신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농촌지도사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사리 샘골(천곡)에 파견되었다. 협성신학교의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났고 이에 최용신은 학업을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농촌계몽운동에 뛰어들려 할 때였다. YWCA는 특히 무산자와 농촌 지역 아동과 여성 교육에 주력하였다. 최용신은 우선 수원의 유지들을 찾아가 지원과 후원을 요청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녀 교육을 권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무시였다. 하지만 매일 이어지는 끈질긴 설득에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결국 1932년 5월 샘골강습소는 정식 인가를 받았다.



협성여자신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과 함께 한 최용신 (맨 앞줄 오른편, 1929)



▲ 최용신의 YMCA 농촌운동 활동 모습



▲ 최용신이 세운 천곡학원 학생들과 교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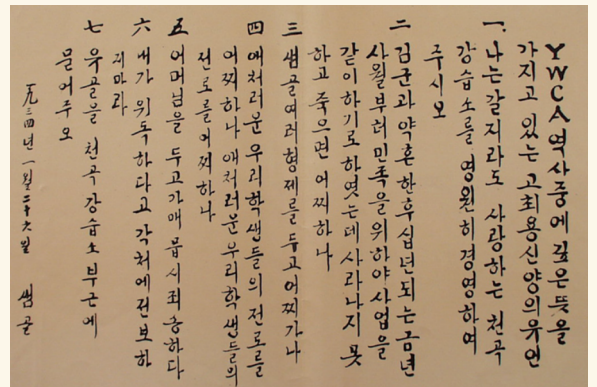


최용신을 모티브로 집필한 심훈의 상록수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소장)

샘골강습소에서는 한글·역사·산수·재봉·수예·창가·성경 등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10여 명에 불과하던 아이들이 서서히 늘어 30명이 넘었다. 최용신의 노력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샘골강습소는 1933년 1월 '천곡학원'이라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봄이 되자 인근 마을 아이들까지 몰려들어 학생 수는 110여 명에 달하였다.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분반하여 운영하여도 지원자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최용신은 강습소 운영을 위해 오전, 오후반 수업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야학, 가정방문까지 진행했으며 수업시간 외에는 농사까지 지었다. 뿐만 아니라 농가 부업, 위생 생활과 환경 개선, 저축 장려 등의 활동을 펼쳤다. 샘골에서의 최용신의 활약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흥무진이었다.

샘골에서의 농촌계몽운동이 자리를 잡아가자 최용신은 더 나은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유학을 선택했다. 1934년 3월 고베여자신학교 사회사업학과에 청강생으로 들어갔다. 교내 잡지에 실은 기고문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기독교 여성으로서 여성·어린이·농민 등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샘골에서 얻은 각기병이 다시 악화되면서 유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결국 6개월 만인 1934년 9월 귀국하여 샘골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간호로 차츰 건강이 회복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일제가 수탈을 강화했고 YWCA의 보조금이 중단되어 천곡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최용신은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다"는 호소문을 기고하는 등 천곡학원 운영의 정상화에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천곡학원이 다시 운영되기 시작할 무렵 과로와 지병 악화로 인해 결국 25년 6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다. 최용신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거행되었고 그녀의 유언대로 천곡학원이 바라다보이는 곳에 묻혔다.



최용신의 유언

이러한 최용신의 삶과 정신은 심훈의 소설 『상록수』(1935)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제강점기 농촌계몽운동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모범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1995년에는 최용신의 활동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번지에 위치한 상록수 공원이다. 1998년 교회 건물이 증축되었으며 2007년 10월에 최용신 기념관이 개관되었다. 인근에 최용신 묘소가 자리하고 있어 그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다.



상록수 공원 내 위치한 최용신기념관과 샘골교회 항공사진



최용신 묘와 묘비석